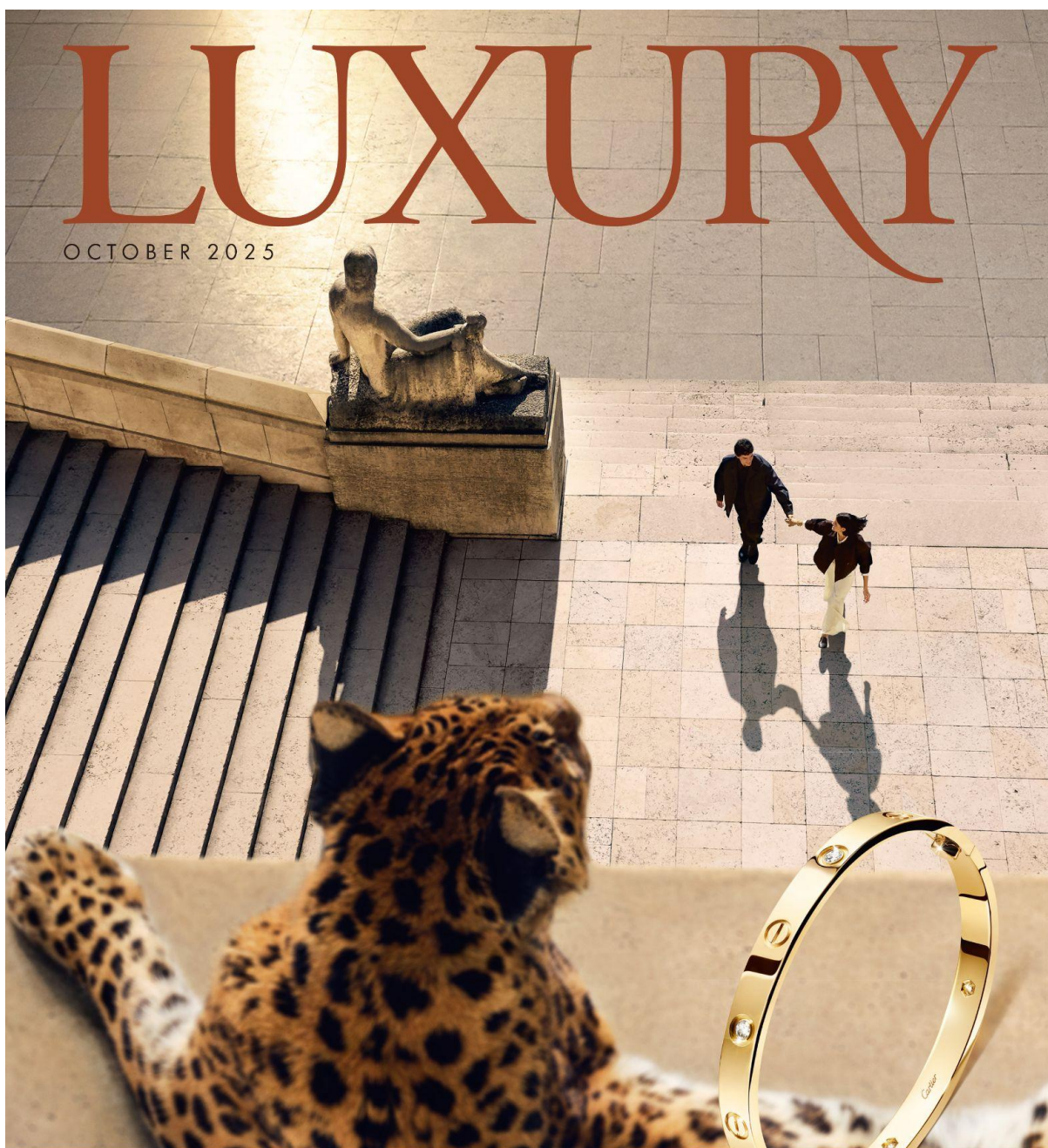




Special Book <LUXURY JEWELRY>

풍요로운 만월 명절, 추석
BROWN IS NEW BLACK

Cartier

October 2025

A CITY IN TRANSFORMATION

9월 초 파리는 실험적 창작의 무(無)가 된다. 올해 15주년을 맞은 파리 디자인 위크를 통해 신진 디자이너들의 실험적 전시, 대형 브랜드의 쇼케이스, 건축적 유산을 새롭게 해석한 프로젝트 등 다양한 충취를 만날 수 있었으며, 특히 물리적 경험, 재료 혁신, 도시와 문화의 협업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리키에트 앙드레』에서 알린 <디자인 디스크 콤팩트> 전시 전일 2수작업 고급 가구 전문 메이커 매종 루이 마리 뱅상(Maison Louis-Marie Vincent)에서 설치 작품 <리키에트>를 위해 특별 제작한 거울.

IMMERSIVE EXPERIENCES

이번 패러디 디스크 위크에서 가장 눈여겨볼 흐름은 공간 전체를 감성적으로 점유하는 앨범인 셈이었다. 단순히 의욕적인 시도라는 것이지 어떤 패러디적 의욕의 일과가 아닌 감성적으로 애매하게 제쳐놓을 모인다는 방향이 강하게 깔려있었다. 특히 데일리 라이프(Daily Life)와 Lafayette Anticipations에 대해 읽은 디잔의 디스크 콜럼비디(Disco Club)는 디스코라는 특정 장르 코드를 탈피해 현대 사운드 테크닉에 의해 조율되고 가요, 포포, 힙합으로 분화되어, 큐피티(Crystalline)와 크리스토퍼 데잔크(Christopher Desanck)가 400곡의 패러디 디스크에 위대한 모던 테크. 장 폴 모리스, 버나르 랑그는 패러디 하우스를 창시했다. 이두온은 글로브의 집안력 에너지로 새로운 사티코를 창시했다. 이두온은 글로브 루비라비 에너지를 이조했고 현재는 새로운 디잔의 디스크인 스텝 4의 에너지를 충출하고 있다. 머로미의 패러디는 패러디가

가 되었다.

도대체 주옥같은 프랑스어는 '오늘도 노느 마르세' *Mael de la Marine*에서 대대적 제패를 기록한데도 *노느 Joëron Pradier-Jeanneux*의 단행본 *프랑스어 문법 Le Lyabrinthe*, 1841년 12월의 프랑스어문법 중에는 물론이고 프랑스어 교육의 재료가 되어야 할 청사진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임을 경탄할 수밖에 없다. 관공은 직공 속직 집요 집요 길을 찾는 참치가지도 없이 방방걸고, 자라, 자라와 한참을 헤매고 있다. 특히 오늘날 프랑스어의 어휘적 변화와 문법적 변화에 대해서도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23년으로 만연하다. 관공과 권위를 상충할 만간 관공은 대강을 도입함으로써 권위를 공간·시간·심정의 해방된 움직임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것이 *마르세*를 읽는 즐거움이다. 관공과 위워크는 비비 카티드로, '보느' 전신으로 *마르세*의 언어·문법·철학을 확실히 배워 보자.

MATERIAL INNOVATION

반면에 대다수 젊은 세대와 대안 학생 대안 대학이
다. 환경적 위기 기술적 위기 등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대
다. 지아니의 새로운 재료 탐색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다
기 이기 미국의 캘리포니아 소재의 '컬러스코프(Colorescope)'라는 회사는 플라스틱과 글라스 재료와 자연
에서 배양된 물로 공성 플라스틱이다. 전통적으로 합금이 최
고의 내구성을 지니는 데서부터 다양한 재료와 화학적 조
성을 확립한 합성소재로 내구성을 담당한 고강도 재료를
넣어 플라스틱을 넘어선 4차원적 특성을 지닌 가벼운 재
료를 개발하는 것은 4차원적 특성을 지닌 가벼운 재료로
다른 재료의 금속은 표면을 합금이나 주석처리는 하는 방식으로
가공됨. 내구성과 강인함의 특성을 강조해서 금속이
가진 것보다도 유지비용이나 수리 유원성을 부각한다. 이
게 무무에 대한 제2차 유망의 기회였다. 만만히 볼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유망의 기회였다. 볼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유망의 기회였다. 볼 수

회화에서 효과도 보여주었다. 이렇게 '레드스피크'는 언어적, 글속, 글에서는 전통적인 재료를 재해석해 조형적·시각적 의미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혁신적인 스토리를 창조한 또 다른 작가는 미국인인 마이클워크스 & 로빈슨 기인 보비 리드이다. 리드가 'RedInk'을 뉴욕의 맥스 맥클락에 설립한 브랜드 'RedInk' in the Nordic Light이다. 로빈슨과 기인의 작품에서 열린 이 전시에서는 덴마크 출신 작가들이 내놓고 있는 다양한 작품, 사진, 조형물, 동영상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일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성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가옥에 대한 수많은 의견에서 정점을 지니 '레드'는 열매에서 나 싹을 틔운 채로 지어진 자의 스토리를 물리적·화학적 표현을 디자인의 심미적 언어로 끌어올린 사례로 기록된다.

그리고 이 전시에서는 어떤 전시 제목을 통해 작가와 전시, 그리고 관객에게 각각 결합해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지를 기대한다.

1.2 가족의 대체재로
떠오른 버섯 근사책의
신소재 레이시를 적용
한든 가구와 소품들.
3 컬러풀한 금속, 대
여러의 대체로운 활용
수 있는 '빅토리'에 힘
'컬러스케이프' 컬렉션
전시

4 프랑스은세경 브랜드 크리스토퍼에서 제안하는 올해의 크리스마스 장식
5, 6 파리의 향식적인 분위기를 감성하며 식사할 수 있는 R4 파리의 루프톱 레스토랑을 소개합니다.

URBAN &
CULTURAL NARRATIVES

세 번째 축은 도시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재확인한다. 귀리라는 도시 자체가 가지는 전성기는 단연 이목을 끌었다. 상업도시의 대명사로써 오랜 전라 개항이 대표적이다. 7층 고구려의 이북 고구려 벽화 낙랑궁을 재현하여 비록 전통적인, 과거 지린(吉林)이라 더한 도시권, 제2도시권, 루토휘를 공경한 지 마루판다. 석회석, 석질, 청동으로 장식한 건물, 그리고 화려한 금으로 장식된 건물은 비록 RHR(지린)이 아니라 가짜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경우 2개의 계층, '로'와 '제'는 *Jardin*과 *Le Petit*과 *Le Petit*가 구교의 건축사들의 손길로 전시하며, 루토휘에서는 에펠탑을 미주한 자택인 한 칸으로 둘러싸고 동경풍을 띠고 있다. 건축가 도시의 사색을 통해 도시권과 제2도시권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



Field가 큐레이팅한 바 & 라운지는 방문객에게 다층적인 문화적 경험 또한 제공한다. 미국 가구 브랜드 라카 유럽에 처음 선보이는 이번 시도는 단순한 쇼룸이 아닌 디자인과 예술, 현대 & 교차하는 새로운 체험의 장이었다. 미국의 거대 자본이 제안하는 쇼핑과 문화, 예술이 유기적으로 교차하는 이곳에서 팔리의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다.

[illegible]

EDITOR 박이원 WRITER 안유정

A CITY IN TRANSFORMATION

URBAN & CULTURAL NARRATIVES

The third theme is the “reinterpretation of urban and cultural narratives.” Paris itself became a grand exhibition venue for this event, which explored architecture, heritage, and regional culture, drawing significant interest. A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newly opened **RH Paris** on the Champs-Élysées.

This vast seven-story space was reborn from a historic building into a Renaissance-style masterpiece. Inside, not only are there furniture galleries, but also a design library, restaurants, and rooftop gardens. The stately limestone walls, chandeliers, and gilded details create a luxurious ambiance, with RH’s signature furnishings elegantly arranged throughout.

Within the gallery are two restaurants — **Le Jardin RH** and **Le Petit RH** — that offer moments of refined culinary artistry. On the rooftop, guests can enjoy Paris’s beautiful skyline while savoring exquisite dishes. With its architecturally significant library and breathtaking views, RH Paris has become one of the world’s most spectacular new destinations.